『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 79~119

안병무(安炳茂)의 민중론에 기초한 통일론 분석*

안수강(백석대학교 강사)

Ⅰ. 들어가는 말
1. 선행연구 동향
2.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
Ⅱ. 안병무의 민중신학 행적 및 통일론과의 접목
1. 안병무의 민중신학 행적
2. 안병무가 이해한 민중의 성격
3.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을 통해서 본 '민중'과 '통일론'의 접목
Ⅲ. 통일론의 '내연'으로서의 '민중'
Ⅳ. '외연'으로서의 기승전결(起承轉結) 구도의 통일론 요체
1. '기'(起): 진정한 해방으로서의 '민족통일' 각성
2. '승'(承): '반(反)통일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3. '전'(轉): 통일의 주체자로서의 '민'(민중)의 위치 부상
4. '결'(結): 민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 '평화의 길' 실천
Ⅴ.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0.03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59348).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7059348).

www.kci.go.kr

• ABSTRACT •

An Analytic Study on Byeong-Mu Ahn's Reunification Theory Based on Minjung Theory

Prof. Ahn, Su-Kang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Byeong-Mu Ahn's reunification theory based on his minjung theory. Minjung theology emerged in the 1970s from the experience of Korean Christians in the struggle for the restoration of the rights of minjung. Ahn regarded 'minjung'(民衆, ὄχλος) as the people who are scorned and oppressed by the powerful military dictator and dictatorship. On the basis of minjung theology, he urged that minjung should initiate the practice to overcome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accomplish the reunification. He thought that a unified Korea is a essential component of Korean national identity.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Ahn's reunification theory through his *Korean National Movement and Reunification* and to analyze the basic outline of the main ideas such as the awakening of national reunification(step1), overcoming trends of anti-reunification(step2), reunification by minjung(step3), the practice of the way of peace based on minjung theory(step4), and so on. The meaningful points Ahn left behind us on the basis of his reunification theor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heological reflection on reunification theory, new paradigm for peaceful reunification, peaceful reunification strategy and practice of peace, withdrawal of ethnic conflict, the emphasis on spirit of national reunification, and the activity of reunification education.

Key words: Byeong-Mu Ahn, Reunification Theory, Minjung Theory, Minjung Theology, National Movement, Division of Korea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안병무(1922-1996)[1]가 자신의 민중신학 입장에서 전개한 통일론을 분석함으로써 신학계의 통일담론을 모색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그의 통일론의 이론적 인프라가 되는 민족운동론을 통해 '민중론'을 고찰할 것이며, 연장 지평에서 '통일론'의 논지들을 분석함으로써 민중론과 통일론의 유기적 관계성을 살필 것이다. 안병무는 통일론과 관련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독선적인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민중에 의한 민중중심의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으며, 특히 기독교정신이 투사(投射)된 민중신학 관점에서 통일론을 지폈다는 점에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1. 선행연구 동향

그동안 안병무의 민중신학과 관련된 연구는 인권론, 구원관, 기독론, 삶의 행적, 서구신학 비판, 성서해석, 메시아론, 민중공동체, 예수 이해, 민중윤리, 교회관 등 여러 방면에서 조명되었다. 인권론 분야에서는 안병무의 인권사상을 평가함으로써 현실적 진단과 전망을 담은 최형묵의 "안병무의 인권사상",[2] 구원관에서는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의 대화를 모색한

1) 안병무(안주 출생, 1922. 6. 23-1996. 10. 19)는 서울대와 하이델베르크대(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수학했으며 감리교신학대, 중앙신학교, 연세대 연신원, 숭실대, 한국신학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신학연구소〉,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 등을 설립했고, 유신치하 투쟁 과정에서 민중신학 체계를 정립했다. 이력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안병무박사고희기념논문집출판위원회, 『예수민중민족』(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안병무 박사의 연보'.

2) 최형묵, "안병무의 인권사상," 『神學思想』제160집(2013), 167-198.

www.kci.go.kr

구미정의 "데기-되기 『선천댁』에 나타난 안병무의 '민중구원론' 다시 읽기"[3]가 발표되었다. 기독론을 다룬 논문으로는 안병무, 박형룡, 이종성의 기독론을 비교분석한 유태화의 "한국 장로교회의 기독론 이해의 한 측면: 안병무를 중심으로"[4]와 '역사의 예수'를 조명한 조수현의 "안병무의 예수론"[5]이 소개되었다. 삶의 행적에서는 안병무의 순례자적 삶과 신학을 논한 채희동의 "안병무의 삶과 신학-한국신학의 순례자-",[6] 민중신학의 서구신학 비판점을 살핀 전철의 "민중신학의 서구신학 비판에 대한 연구"[7]가 돋보인다. 성서해석 주제로는 탈 부르주아 관점에 초점을 맞춘 김명수의 "안병무의 탈 부르주아 신학적 성서해석학"[8]이 있고, 메시아론으로는 민중메시아론을 과정신학의 범재신론으로 재해석한 김희헌의 "과정신학의 범재신론 지평에서 본 안병무의 민중메시아론"[9]이 출간되었다. 이외에도 안병무의 평화의 염원을 담은 이재정의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안병무의 민중공동체",[10] 한정헌의 "들뢰즈 사상에서 본 안병무의 소수자신학",[11] 손규태의 "심원 안병무의 교회 이해"[12] 등이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3) 구미정, "데기-되기 『선천댁』에 나타난 안병무의 '민중구원론' 다시 읽기," 『神學思想』 제153집(2011), 221-258.
4) 유태화, "한국 장로교회의 기독론 이해의 한 측면: 안병무를 중심으로," 『개혁논총』제22집(2012), 157-196.
5) 조수현, "안병무의 예수론," 『신학과현장』제7집(1997), 275-302.
6) 채희동, "안병무의 삶과 신학-한국신학의 순례자-," 『민중과신학』제2권2호(2000), 76-93.
7) 전철, "민중신학의 서구신학 비판에 대한 연구," 『組織神學論叢』제30집(2011), 107-132.
8) 김명수, "안병무의 탈 부르주아 신학적 성서해석학," 『神學思想』제96집(1997), 125-154.
9) 김희헌, "과정신학의 범재신론 지평에서 본 안병무의 민중메시아론," 『神學思想』제140집(2008), 233-274.
10) 이재정,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안병무의 민중공동체," 『신학연구』제59집(2011), 144-172.
11) 한정헌, "들뢰즈 사상에서 본 안병무의 소수자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제96집(2015), 67-91.

www.kci.go.kr

다.

반면 지금까지 그의 통일논지는 통일담론을 담은 일부 학술지에 단편적 지엽적으로만 인용되었다. 본 연구자가 확인한 바로는 그의 통일론을 주제로 다룬 논문으로 2011년『神學思想』에 발표된 강원돈의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13]이 유일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안병무가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논한 정의와 평화의 관계를 규명했으며 전쟁배제의 원칙, 민중의 주도, 민중 관점에서 분단체제의 전향적 해체, 민중에 의한 통일헌법 마련 등을 제시함으로써 민중의 역할과 책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 관점에서 민중운동의 역사적 통찰, 민중의 성격, 민중론과 통일론의 유기적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2.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

본 논문에서는 안병무의 민중신학 영역 중 그동안 깊이 있게 조명되지 못한 통일론을 고찰함으로써 이 분야의 후속연구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우선, 안병무의 통일론을 고찰함으로써 신학계에 통일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담론을 조성하고자 한다. 남북한 간에는 햇볕정책의 기조가 퇴조되어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상황이었고 북한은 소위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며 핵무기 개발을 강행해왔다.[14] 그러나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

12) 손규태, "심원 안병무의 교회 이해,"『神學思想』제120집(2003), 157-181.
13)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神學思想』제151집(2011), 141-171.

www.kci.go.kr

픽〉이 개최되면서 이를 매개로 최근 남북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교섭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이 진전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척되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된다. 타 인문학 분야에 비해 신학계에서는 통일론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며 학술강론 및 학업 현장에서도 통일론과 관련된 저술활동은 답보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통일론 정립에 공헌한 안병무의 신학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향후 실용성 있는 통일 연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안병무의 통일론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통일 관련 다작(多作)에 비해 가장 발굴되지 못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안병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민중신학 관점에서 인권론, 구원관, 기독론, 삶, 서구신학 비판, 성서해석, 메시아론, 민중공동체, 예수이해, 민중윤리, 교회관 등을 주제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통일론을 단일 주제로 다룬 연구논문은 2011년에 발표된 강원돈의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한 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론 정립에 공헌한 안병무의 민중신학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추후 그의 통일론 논지들을 심층 정제하여 탐구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다.

2) 연구내용

안병무의 통일론은 민족운동론이 선행 교두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14) 이장형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추구했던 햇볕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았고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박근혜 정권 때에 이르러서는 남북한 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장형, "남북통일 논의의 기독교 내러티브 윤리적 접근," 『기독교사회윤리』제36집(2016), 151.

www.kci.go.kr

반드시 그의 민중신학 행적과 통일론을 한 지평에서 유기적으로 엮어 조명하는 연구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종래의 연구는 주로 민중론에 편중되었으며 이러한 논점을 면밀하게 밝혀준 논문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안병무의 통일론은 큰 틀에서 민족운동론에서의 주역인 민중이 논리적 근간(根幹)이자 '내연'(內燃)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통일론은 그 '외연'(外延)에 위치한다.[15] 본 연구에서는 그의 민족운동론을 세분화하여 '민족공동체론', '민중중심론', '신앙-민족애론'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조명할 것이다. 민중론에 기초한 통일론 요체 분석에서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도로 접근하여 숙고하고자 한다.

II. 안병무의 민중신학 행적 및 통일론과의 접목

1. 안병무의 민중신학 행적

안병무는 1950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Heidelberg)에 진학했다. 그는 불트만(Rudolf Bultmann)을 계승한 보른캄(Günther Bornkamm) 문하에서 신약학을 전공하고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여 "공자와 예수의 사랑 이해"를 주제로 1965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6] 그는 1970년대에 서남동, 문익환, 현영학, 서광선 등과 함께 민주화 투쟁에 나서 유신정권(維新政權)의 전횡에 항거하면서 민중신학을 개척했다. 1979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15) '내연-외연'의 유기적 상관관계는 역사신학자 민경배의 역사관에서 강조되는 논점이다. 그는 생명력이 활기차게 불타오르는 내면적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힘의 방사가 외부로 촉발된다고 보았다. 즉 신앙이 내연으로 무르익어 개인에게서 성취되면 그 내연은 자동적으로 외연으로 연장되어 표출된다는 논리이다. cf. 민경배, 『歷史와 信仰』(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87. 민경배, 『敎會와 民族』(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17.

16)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0권)』(서울: 기독교문사, 1994), 1209. '안병무' 항목.

www.kci.go.kr

국제신학심포지움 준비과정에서 한국신학자들은 토론과정을 거쳐 새롭게 발흥한 이 신학의 조류를 가리켜 민중신학이라고 명명했다.[17] 서광선은 1970년대 초반에 민중을 주제로 설정하여 주요 논문들을 발표한 대표적인 인사들로서 안병무와 서남동 두 사람을 손꼽는다.[18] 안병무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꾸준히 한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서남동과 더불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저술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빈천한 사람들, 이른 바 약자들로 대변되는 민중의 뼈저린 '한'(恨)을 자신의 신학사상과 체계에 십분 용해함으로써 민중신학을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가 되었다.

그는 유년기를 간도(間島)에서 지내고 참담했던 일본강점기 식민통치의 아픔을 체험하면서 압제 당하는 민족상을 통해 자신의 신앙체계에 민중신학의 아이디어를 각인했었지만 그의 신학이 체계성을 갖춘 학문으로 개화된 것은 1970년대 중 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그의 민중신학은 1975년 6월 제1차 교수직 강제 해직, 1976년 3월 '3·1민주구국선언'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일, 그리고 1980년 8월 제2차 교수직 박탈이라는 생생한 현장체험을 통해 확장되고 구체화 되었다. 그는 1987년 한신대학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후 명예교수로 봉직했으며 1996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20년 이상 민중신학의 만개(滿開)를 모색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의 민중신학은 각별히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 사회정의, 그리고 혁신의지를 각성하게 해주는 모티브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그는 삼엄한 유신치하에서도 과감하게 현장신학을 전개하여 사회참여 의식을 환기시켰고 정의와 인권을 외쳤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황금만능주의와 수

17) 현영학, "민중, 고난의 종, 희망," 『神學思想』제51집(1985), 863; Kwang-Sun Suh, "Korean Theological Development in the 1970s," ***Minjung Theolog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3), 41-42.

18) Kwang-Sun Suh, "Korean Theological Development in the 1970s," ***Minjung Theology***, 41.

www.kci.go.kr

직적 관료계급화를 지양하고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수평적 종교로 거듭 나야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가 늘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여 생각했던 민중은 해방 전 일본 강점기에는 간도에서 고생하며 신음하던 자의 잔상(殘像)으로, 해방 이후에는 동란의 소용돌이를 거쳐 자유당 정권에 압제 당하는 자의 양상으로, 그리고 유신치하에서는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처절하게 투쟁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쳐졌다. 그가 평소 고백한대로 늘 그의 뼈에 사무치고 가슴에 응어리졌던 '한'은 바로 이 민중의 한이었다.[19] 그는 이처럼 민중의 위치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신학을 대변하는 용어인 마가복음에서의 오클로스(ὄχλος)[20]라는 관점에서 체득했다.

2. 안병무가 이해한 민중의 성격[21]

민중신학은 1970년대에 기독교인들이 유신 군사정권을 거치며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모순과 부조리를 경험하고 성찰하면서 체계화 된 경험의 산물이었다. 모순과 부조리를 시정하고 개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신학체제로 구체화됨으로써 이론신학이 아닌, 현장신학으로서의 민중신학으로 빛을 보았던 것이다.[22] 당시 민중의 의미가 심층 부각된 것은

19) 안수강, "안병무의 민중신학(民衆神學) 고찰," 『역사신학논총』제22집(2011), 55-56.

20) '오클로스'(ὄχλος)는 신약성경에서 '군중', '많은 무리', '혼잡한 백성의 떼'라는 의미로 구사되며 특수하게는 '대중', '백성', '서민'의 의미로, 보편적으로는 '다수', '큰 무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Gerhard Kittel(ed.), *T. D. N. T.(Vol. V)*, Translated by G. W. Bromily(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77), 588-589; *A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133. 안병무는 마가복음에서의 오클로스의 의미를 예수 활동의 배경, 죄인들로 불린 자들, 제자들과는 다른 자들, 예수를 비난한 지배층과 대조되는 자들, 통치자들에게 저항한 자들이라고 이해했다. Byung-Mu Ahn, "Jesus and Minjung in the Gospel of Mark," *Minjung Theology,* 140-141.

21) 본 절은 본 연구자가 발표한 다음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본고의 취지에 맞도록 구성했다. 안수강, "안병무의 민중신학(民衆神學) 고찰," 63-65.

22) 서광선, "한국의 민중신학," 『1980년대의 한국 민중신학의 전개』(서울: 한국신학연구

www.kci.go.kr

삼선개헌, 유신헌법 제정, 제5공화국의 등장 등 정치적 변혁이 큰 빌미가 되었다.[23] 특히 이 시기는 농촌의 피폐와 이농인구의 증가, 도시빈민의 확대, 노동조건의 열악성과 노동문제의 대두,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에 따른 분배의 문제, 외채 누적과 해외 의존도의 심화 등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노골화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다.[24]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초기 민중신학의 징검다리를 놓은 신학자들은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 예술가들, 시인들과도 폭 넓게 교제하며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25] 안병무 역시 1972년경부터 민중의 현장에 뛰어들어 이들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 내가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 신안주였어요. 그런데 만 한 살도 채 안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간도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간도가 나의 실질적인 고향이 돼 버렸지요.[26]

> 그 당시(안병무의 유년기-본 연구자 주) 간도는 마치 예수 당시 팔레스틴의 갈릴래아 같은 이방인의 땅, 민중의 현장이었지요. 민중에 대한 나 자신의 관심은 그러한 뿌리를 가진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신학적으로 개화한 것이라고나 할까요?[27]

내가 '민중'을 신학의 테마로 해서 글을 쓴 것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

소, 1990), 39.

23) 조승혁, 『한국교회와 민중선교의 인식』(예산: 정암사, 1986), 128.

24) 서광선, "한국의 민중신학," 40. 원종흥, 『西洋哲學과 基督敎哲學』(서울: 수덕문화사, 1990), 128.

25) Kwang-Sun Suh, "Korean Theological Development in the 1970s," ***Minjung Theology***, 42.

26)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1.

27) 앞의 책, 17-18.

www.kci.go.kr

니다. “예수와 민중”(=오클로스)이라는 짤막한 글을 쓴 것이 1972년이었으니까요. 감옥에 들어가기 3년 전이었지요. 나는 민중의 고난을 한 개인의 고난으로 보지 않고 집단적인 고난이라고 보았어요. 어느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집단이 당할 고난을 그가 대신해서 당하는 것뿐이다. (중략) 군사독재가 들어서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었죠. 그럴 때 그 독재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민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가슴에 사무쳤고 이것이 바로 민족의 한, 민중의 한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서에서 찾다가 발견한 것이 ‘오클로스’였습니다.[28]

위의 인용문에 기술된 고백은 안병무가 유신체제하에서 자신의 민중신학을 전개함에 있어 그가 말하는 민중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안병무는 민중의 개념을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인에 국한하지 않고 무리로서의 공동체에 적용했다.[29] 즉 그의 신학은 특정한 일부 개별자보다는 보편자를 지향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고난을 표현할 때도 개인의 고난이 아닌 집단적인 고난이라고 표현했다.

둘째, 간도에서 고생하던 동포들과 유신정권 하에서 압제 당하고 한에 사무친 사람들 모두를 일괄적으로 민중과 동일시했다. 이렇듯 그가 논하는 민중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따라서 그의 민중관은 특정한 시대의 공동체로만 국한되지 않고 통시성을 갖는다.

셋째, 그는 기독교신앙을 굳이 민중이 고백해야 할 조건으로 내걸지

28) 앞의 책, 25.

29) 적용적인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민중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자의 소신으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입법, 사법, 행정, 나아가 군부, 재력가 등 전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수의 상위 조직 혹은 기득권층 특정 인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소통하며 평등하게 거국적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다면 이는 민중의 정체성이 발휘된 것으로 본다.

www.kci.go.kr

않았다. 그의 민중신학 체계는 기독교의 전통적 신앙고백과는 무관하며 아예 종교적 성격을 초월하려는 특징을 지닌다. 그에 있어서 민중은 압제당하고 투옥되고 응어리진 한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넷째, 그의 신학체계에서는 고통당하는 오클로스로서의 민중이 역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정곡이자 주체가 된다. 그의 신학을 대변할 만한 전형적인 용어, '한'[30]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듯이 그는 신학의 초점을 유구한 역사 속에 누적된 참담한 민중의 현실에 맞춘다.

그는 민중신학자로서 1970년대로부터 1990년대까지 『역사와 증언』(1972), 『해방자 예수』(1975), 『시대와 증언』(1978), 『역사와 해석』(1982), 『옳은 민족 옳은 역사』(1982), 『진실 때문에』(1982), 『사회학적 성서 해석』(1983), 『역사의 예수』(1983), "Jesus and Minjung in the Gospel of Mark"(1983), 『역사 앞에 민중과 더불어』(1986), 『민중신학 이야기』(1987), 『민중 속의 그리스도』(1989), 『갈릴래아의 예수』(1990), 『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1990), 『생명을 살리는 신앙』(1997), 『불티』(1998), 『기독교의 개혁을 위한 신학』(1999), 통일론 관련 소논문 집록인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2001) 등 민중신학 체계를 담은 다양한 저서들을 발표했다.

3.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을 통해서 본 '민중'과 '통일론'의 접목

안병무는 자신의 민중신학을 전개하면서 민중의 한을 민족분열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반영하여 통일과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 과업을 주제로 역작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31]을 남겼다. 이 저서에 게재된 다양

30) 민중신학에서의 민중경험의 핵심은 '한'이며 한은 민중 세계관의 중심적인 요체가 된다. 박삼경, "민중신학과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해방의 의미," 『기독교사회윤리』제24집 (2012), 128.

31)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www.kci.go.kr

한 주제의 통일론은 본래 안병무가 단행본을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통일문제를 주제로 삼아 틈틈이 작성해 두었던 소논문들이다. 따라서 이 저서는 그의 통일론 관련 소논문들을 집록하여 집대성한 총서(叢書)라 할 수 있다.

이 저서는 본래 1997년 6월 발족에 발족된 〈심원(心園) 안병무 선생 기념사업위원회〉에서 그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사상을 기리기 위하여 출판한 전집 중 한 권이었다.[32] 당시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창의는 이 저서에 대해 일반 전집 출판과는 달리 단행본 형태로 계속 출판할 뜻을 밝혔을 정도로 민중신학 계열에서 통일론을 심층적으로 다룬 뛰어난 저작으로 평가받았다. 홍창의는, 이 문헌에는 한국 민족운동의 맥과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안병무의 평론이 담겨져 있으며, 저자인 안병무가 직접 자신의 소논문들을 편집하고 손수 목차까지 작성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저작이라고 했다.[33]

안병무는 이 저서에서 자신의 신학체계의 주제이자 정점인 '민중'을 '통일론'에 접목시키려는 의지를 관철했다. 총 8부로 편성하여 큰 틀에서 '민족운동론'(제1부-5부)과 '통일론'(제6부-8부)이라는 두 영역의 프레임(骨組)을 한 지평에서 유기적으로 엮어 편성했다. 제1부부터 5부까지는 옳은 민족 옳은 역사, 한국의 민족감정, 한국의 민족운동, 한국민과 종교, 민족자결 등 민족운동론을 중심으로 민중론 논지를 전개했고 제6부부터 8부까지는 분단과 평화, 통일의 주체, 평화의 길 등 통일론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편성 구조는 '민중'과 '통일론'이 불가분리의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다.

---

32) 안병무가 남긴 문헌들은 전집으로 편성 발행되었으며 『역사와 해석』(제1권), 『민중신학을 말한다』(제2권), 『갈릴래아의 예수』(제3권), 『예수의 이야기』(제4권), 『민중과 성서』(제5권), 『역사와 민중』(제6권) 등이 있다.

33)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2.

www.kci.go.kr

III. 통일론의 '내연'으로서의 '민중'

역사학자 호리고메 요조(堀米庸三)는 자신의 저서『역사를 보는 눈』(歷史を みる 眼)에서 급격한 변혁의 시대와 특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역사에 쏠리는 관심이 가장 진지하게 고조된다고 주장했다.[34] 전술했듯이 1970년대 군사정권 유신체제라는 시대적 정황에서 안병무의 민중신학이 만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논리에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안병무의 저서『민중신학 이야기』,『갈릴래아의 예수』,『민중사건 속의 그리스도』, 소논문 "민중의 하느님", "한국교회의 예수상", "민중의 교회" 등을 중심으로 그가 민중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게 된 배경과 민중신학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연구한 바 있다. 그의 민중신학은 빈천하고 소외당하는 인간상, 시공을 초월하여 고통 받는 사람 모두를 민중으로 보려는 우주적 개념으로서의 민중, 전통적 신앙고백 여부와는 상관없이 억눌리고 비천한 동류로서의 사람들, 기득권층의 착취와 압제에서 해방 받아 물적(物的) 체계를 확립하는 저항자 형상의 인간관을 부각시켰다. 또한 철저하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now and here)라는 컨텍스트 정황에 주목하여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혁명가로서 민중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상, 도그마와 제도적 교회를 혁파하고 민중중심의 정치성을 구현하는 교회관을 지향했다.[35] 그의 민중신학은 이러한 개념들이 한 지평 안에서 치밀하게 집약되고 정반합(正反合) 체제를 거치며 진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안병무는 자신의 통일론 역시 민중신학의 민중에 기반을 두고 전개했

34) 堀米庸三, 歷史を みる 眼, 박시종 역,『역사를 보는 눈』(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8), 21-22.

35) 안수강, "안병무의 민중신학(民衆神學) 고찰," 83-85.

www.kci.go.kr

다. 그의 통일론은 철저하게 민중이 그 내연으로 위치해 있다. 그가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전반부에 편성한 '민족운동론'은 사실상 후반부에 전개된 '통일론'의 이론적 배경이며, 민족운동론에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민중은 그 내연에 해당된다. 서명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에 구사된 등위접속사 '과'(and)는 전후 장(章)의 맥락을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구조를 구형해 준다는 점에서 전자와 후자 간의 논리적이며 긴밀한 연계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는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의 후반부에 전개된 통일론에 비추어 전반부의 민족운동론에 나타난 주요 논지들을 '민족공동체론', '민중중심론', '신앙-민족애론'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이 용어들은 안병무의 깊은 논지들을 살펴 이를 명제화하려는 차원에서 본 연구자가 명명한 것이다.

첫째, 안병무는 민족은 둘이 아닌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민족공동체론**'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라는 큰 범주의 공동체를 묘사할 때 '국가'라는 개념이 아닌 '민족'의 개념을 투사했다. 그에 의하면 통일의 진정한 의미 또한 '국가의 통일'이 아닌 '민족의 통일'로 귀착된다. 그는 기독교의 민족 이해를 모두 여섯 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단위(unit) 그 자체를 중시했다. 이 대전제에 기초하여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場)이자 동시에 심판의 대상도 된다는 점,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는 단위가 된다는 점, 민족은 정치체제화 된 국가의 국민과는 구별된다는 점, 민족은 하나님의 새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까지의 과도적 단위라는 점, 그리고 민족은 있어도 민족주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철칙으로 고수했다.[36] 즉 안병무는 민족을 하나의 단일체로서 공생공존하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동질성을 지닌 공동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논지에 입각하여 민족 분단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8·15해방이 민족을 하

36)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207-208.

www.kci.go.kr

나의 단위로 엮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 채 남북 분열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 민족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침잠해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민족공동체론'의 핵심은 진정한 통일은 역사, 문화, 사상, 전통 등 모든 면에서 유구한 동질성을 지닌 남한과 북한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데 있다.

둘째, 안병무는 그동안 과거의 민족운동사에 부각된 민중의 역할을 통시적 역사관으로 조명해냄으로써 **'민중중심론'**의 논지를 도출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동학혁명, 20세기 들어 3·1운동, 4·19혁명 등 의미심장한 민족운동이 한결같이 민중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파악했다.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농민 민중이 각성해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궐기했던 운동으로, 3·1운동에 대해서는 민중에 의해 신앙과 민족애가 합류된 운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5·16군사정변을 단호하게 도절(盜絶)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앞서 발발한 4·19혁명에 대해서는 민중의 힘에 의해 합리주의적 사고가 대두되고 적용된 의거(義擧)였다고 평가했다.[37] 그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통시적인 관점에서 일련의 거국적 봉기를 걸머진 주역은 항상 민중이었다고 확신했다. 그의 이 논지는 함석헌이 주장했던 민중 주도에 의한 역사 창출의 신념[38]과도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 안병무는 이를 논거로 삼아 통일의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투철하게 민중이 통일운동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7) 앞의 책, 157, 160-162. 민중신학에서는 기독교의 토착화를 주장함으로써 역사의 민중신학적 재해석을 주장한다. 따라서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등 일련의 모든 운동에 대해 신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cf. 김기달, "민중신학과 정통신학의 비교연구," 『韓國敎會史學會誌』제3집(1990), 97-98.

38) 가령, 함석헌은 자신의 민중사상을 전개하면서 4·19와 5·16을 대조했다. 전자는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결과였지만 후자는 민중을 움직이는 지식 없이 수행되어 초래된 역사적 퇴보라고 비판했다.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전집 제14권)』(서울: 한길사, 1985), 138.

www.kci.go.kr

따라서 통일론에 있어 그의 '민중중심론'의 핵심은 상위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계층이나 특수 권력기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수직적 전권을 혁파하고 거국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솔선 동참하는 수평적 통일운동 전개에 있다.

셋째, 안병무는 기독교신앙과 민족애가 합류된 **'신앙-민족애론'**의 도식을 설정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3·1운동을 들었는데 그는 이 거사에 대해 기독교의 사상적 뒷받침이 약했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한국 민중운동의 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3·1운동이 하나님 신앙과 민족애가 합류된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일과 나라사랑이 하나가 됨으로써 위대한 순국정신이 발현될 수 있었다고 했다.[39] 물론 그가 말하는 민족애는 민중이 현장에서 펼쳐낸 숭고한 사랑을 가리킨다. 안병무는 통일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후반부에서도 기독교신앙과 민족애의 관점을 꾸준히 부각시킴으로써 '신앙-민족애론'의 도식을 통일론에 외연하여 반영하려는 일관된 소신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의 통일론에서의 '신앙-민족애론'의 핵심은 기독교 민중신학 관점에서 민족의 통일을 성취해냄으로써 진정한 민족사랑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논지를 보여준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안병무가 기독교인들이 3·1운동 참여에 솔선한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신앙과 민족애를 인과관계 즉 '신앙에 근거된 민족애'의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개별적인 두 개의 지류가 하나로 합류된 양상인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의 소신으로는 신앙은 '내면적 기초석'에 해당되며 민족애는 삶속에서 신앙이 발산되어 분출된 '실천영역'으로 본다. 기독교인들의 3·1운동 거사가 신앙심의 발로였다고 볼 때 신앙은 '내연'으로, 거사는 '외연'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1운동 전

39)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151.

www.kci.go.kr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내연과 외연의 상관성을 깊이 있게 간파한 학자로는 박정신이 있으며 『근대한국과 기독교』에서 이 논점을 피력했다.[40]

IV. '외연'으로서의 기승전결(起承轉結) 구도의 통일론 요체

안병무는 통일론을 철저하게 민중신학의 '민중'에 기반을 두고 전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前) 장에서 고찰한 그의 '민족공동체론', '민중중심론', '신앙-민족애론'은 내적 기반으로서의 내연에, 그의 통일론은 실천적 장으로서의 외연에 해당된다.

통일론을 담은 안병무의 논문들은 단기간에 집필된 것이 아니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논지들을 담아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로 산재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그의 민중론을 기반으로 통일론을 기승전결의 단계적 체계로 접근하여 분석했다. 그의 논지들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起)의 단계에는 진정한 해방으로서의 민족통일 각성, '**승**'(承)의 단계에는 반(反)통일적 현상 극복을 위한 노력, '**전**'(轉)의 단계에는 통일의 주체로서의 '민'의 위치 부상, '**결**'(結)의 단계에는 통일을 지향한 '평화의 길' 실천으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1. '기'(起): 진정한 해방으로서의 '민족통일' 각성

안병무가 주장한 진정한 해방으로서의 '민족통일'은 통일의 화두(話頭)를 문제로 제기하고 민중신학에 입각하여 풀어내기 시작하는 가장 원초

40) cf.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서울: 민영사, 1997), 39, 56, 59. '內燃-外延'의 논리와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민경배, 『歷史와 信仰』, 87; 안수강, "李樹廷의 「信仰告白書」와 「宣敎師派送呼訴文」 문헌 분석," 『韓國敎會史學會誌』제33집(2012), 190.

www.kci.go.kr

적인 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논리적 구도의 '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비록 우리 민족이 8·15해방을 통해 식민통치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민족회복'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이를 가리켜 '쟁취하지 못한 해방의 비극'이라고 했으며 민족통일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술회했다.[41] 안병무의 이 주장은 자칫 아이러니한 표현으로 절하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 그가 간도에서 성장할 때 현지 동포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고통을 겪는 참상을 목격하며 자라났던 처지를 고려해보면 민족이 분열된 채로 맞은 8·15가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는 그의 주장에는 심오한 호소력이 농축되어 있다. 그는 『민중신학 이야기』에서 간도생활을 되돌아보며 민족의 한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이 고백은 그의 민중신학에서의 '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풀뿌리 모체와도 같다.

> 일제시대 간도 땅에서의 한국인의 삶은 전형적인 민중의 삶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뼈에 사무치게, 내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민중'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다지도 못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눌리고 빼앗겨야만 되나? 간도 땅에서 유배생활 같은 것을 하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철저히 버려진 채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없이 사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울분이 어린 가슴에 철천지한으로 응어리져 있었어요.[42]

그는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물러가고 해방을 맞았지만 솔직

41) 안병무, "내가 맞은 8 · 15해방: 쟁취하지 못한 해방의 비극," 『역사비평』제28집(1995), 15, 19.

42)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17-18. 안병무는 1986년 5월, 당시 〈한국신학연구소〉 학술부장이었던 박성준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민중신학의 뿌리가 간도라는 컨텍스트에서 내려졌고 민중에 대한 사무친 생각이 시대를 거슬러 일제시대, 특히 간도 체험에서 연원한다고 고백했다. 안수강, "안병무의 민중신학(民衆神學) 고찰," 60.

www.kci.go.kr

히 단 한 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크게 웃어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다.[43] 그렇다면 그는 왜 8·15가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고 보았는가? 그토록 간도 땅에서 힘들게 살았고 식민치하에서 고생한 민족이 설상가상으로 쪼개져 하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논리를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해방 이후 남한의 상황은 헤게모니의 각축장으로 치달아 사상투쟁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정, 폭행, 암살이 난무했고 이 배경에는 일본강점기부터 특혜를 누려왔던 지주파, 일제의 잔재세력을 중심으로 급조된 이승만파, 좌우합작을 시도한 건준파(建準派), 공산당 등이 있었으며 게다가 중국 상해(上海)에서 명맥을 잇다가 귀국한 임시정부파와 이승만파의 암투까지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44] 사실, 정부수립 이후에 정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워 강력한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제2공화국에서는 내각책임제 정권의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 계보적인 불협화음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김대중과 김영삼으로까지 이어졌다.[45]

둘째, 해방을 자주적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강대국 외세에 의존함으로써 민족의 염원을 배반하는 분단의 비극을 자초했고, 남쪽과 북쪽에 피차 단독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민족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지 못한 채 비극이 고착화되었다고 비판했다.[46]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시행

43) 안병무,『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299.
44) 앞의 책, 299-300.
45) 김명구, "해방 후 이승만, 윤보선, 장면의 사상적·계보적 갈등 연구,"『韓國敎會史學會誌』제33집(2012), 248.
46) 안병무,『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300.

www.kci.go.kr

한 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국호로 선포하여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은 1947년 2월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한 후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추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다.[47] 그는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자력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지만 오직 한국만이 예외의 국가라는 점을 통탄했다.[48] 이렇듯 그는 '외세의존 해방'과 '자력통일 불가'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과관계로 엮어 도식화했다.

셋째,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방 후 이승만 자유당정권이 헤게모니에 빠져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도리어 친일파 인사들을 등용하고,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일본과 비정상적인 국교정상화를 수립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일본에 종속되는 형편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어느 한 분야에서도 여태껏 제대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처지라고 보았다.[49]

그렇다면 무엇이 참 해방인가? 안병무의 입장에서 참된 해방은 외세의 통치에서 벗어나 한국 스스로 자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민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설파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은 '민족회복'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unification'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re'(再)의 의미가 부여된 'reunification'을 가리킨다. 예전의 하나였던 민족으로 '다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과제로서 상호 유기적 성격을 갖는 세 가지 사안이 충족되어

47) 이중근(편), 『6·25전쟁 1129일』(서울: 우정문고, 2014), 12-13. 1945년 9월 9일에 선포된 북한 헌법 제1조에는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新東亞編輯室(편), 『原資料로 본 北韓』(서울: 동아일보사, 1989), 58.

48)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304.

49) 앞의 책, 300-303.

www.kci.go.kr

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외세의 잔재를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주적 자기 건설을 위한 자강(自强)의 실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보았다.[50] 이렇듯 안병무는 해방의 본질적 의미를 민족이 분쟁과 헤게모니를 극복함으로써 건전한 국시(國是)를 지향하고, 자주권을 확립함으로써 한국 국민 스스로 정체성을 구현하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열망인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데 두었다.

2. '승'(承): '반(反)통일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안병무가 '반통일적 현상' 극복을 위해 던진 메시지는 그가 '기'의 단계에서 제기한 통일론을 더욱 확산적이며 원심적(遠心的)으로 강화하고 파급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이 된다는 점에서 '승'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안병무는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반통일적 양극화 분열현상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 지평에서 조명했다. 첫째는 국토분단 현상이고, 둘째는 지역 간 분열이며, 셋째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그리고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계급적 분열이라고 파악했다. 특히 그가 지적한 세 번째의 계급적 분열을 담은 논지는 민중신학에서의 오클로스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기득권층이 반공법, 보안법, 안기부법 등을 권력쟁탈전의 무기로 삼음으로써 분단이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독교인들마저도 집권자들의 그물에 걸려 세뇌 당한 부류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51] 그나마 1987년 기독교가 공권력의 물리적인 힘에 맞서 통일론을 민의 문제로 인

50) 앞의 책, 300-302. 안병무의 이 논지는 남북한 단일 민족의 정체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는 외세의 잔재 소탕, 자율권, 자강의 실력을 갖춘 민족이 될 때 비로소 견실한 민중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51) 앞의 책, 304-305.

www.kci.go.kr

식하여 쟁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반통일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이 대안들을 통해 민중신학 입장과 민족통일론을 한 지평에서 접맥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간의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화해는 공산당에게 당한 쓰디 쓴 경험만을 회상함으로써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여 증오한다거나, 반면 반공의식을 보류하는 형태를 취하자는 것도 아니며 성경에 나타난 '제사적 행위'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고 논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체적인 화해의 행위로 나타났듯이 통일론 역시 '희생의 제물' 교훈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52] 그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53]까지의 말씀을 분석하면서 '이전'(以前)과 '지금'(只今)이 대비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열쇠로 파악했다. 그는 이전에는 서로 멀리 있던 사이, 담으로 막혀 있던 사이, 원수 되었던 사이가 이제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큰 전환을 가져온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요 '십자가'였다고 탄복했다.[54] 안병무는 이 구절들을 남북한 화해와 평화추구에 적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사안들을 타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집권층이 자기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하며, 남한 측에서 먼저 일방적으로라도 군축을 단행함으로써 평화의지에 대한 실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5]

---

52) 앞의 책, 307.

5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략)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2:13-16).

54)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332-333.

www.kci.go.kr

둘째, 한국의 반통일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지론으로서 '희년(禧年)은 화해의 제사'라고 선언했던 점을 상기하여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기독교가 해방 50주년인 1995년을 희년으로 선포했던 사실을 들어 이 희년의 정신이야말로 역사의 악순환에서 뒤엉킨 모든 문제를 풀고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하여 창조의 본래적 질서로 돌아가자는 선언이 될 수 있다고 어필했다. 그는 희년의 교훈과 정신을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현안들로서 특권층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비인간화의 처지에 놓인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회복하게 하며, 통일의 장애물이 되는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6]

셋째, 평화통일의 과업은 자본주의 체제나 권력을 독점물로 영구화하려는 세습 권력체제로서는 성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통일의 주체는 결코 정권도 기업가들일 수도 없고 오직 민 스스로의 힘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57] 안병무는 이를 논거로 삼아 민중신학 입장에서 오클로스에 의한 민족통일론으로 논지를 진일보 진전시켰다. 그는 민중에 의한 민족통일이 진정한 통일방안이라고 제시하면서 바로 이러한 신념이 기독교로 하여금 통일운동의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보았다.[58] 그는 자신의 민중신학 관점에서 예수님의 위치와 사도 바울의 평화운동을 조명하면서 오클로스야말로 민족통일운동의 주역이

55) 앞의 책, 307.

56) 앞의 책, 308. cf. 안병무, "희년선포와 통일헌법," 『神學思想』제76집(1992), 162-172. 안병무가 예시하는 통일의 장애물은 남북한이 상호 대치한 상황에서 전쟁무기를 증강하거나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시행된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는 행사 등을 가리킨다. 안병무의 희년선포와 통일헌법은 그 자체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논문주제로 선정하여 심층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통일헌법의 원칙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163-165.

57)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308.

58) 앞의 책, 339.

www.kci.go.kr

자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자부했다.[59]

안병무는 자신의 논지를 1972년에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60]의 3대 모토와도 접목해가며 민중신학 입장에서 통일론을 지폈으며 강대국 외세도 정권도 아닌, 민이 주도해가는 통일을 내세웠다.

> 동기야 어쨌든 7·4공동성명의 3대 전제는 통일논의에 결정적인 발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①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③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이 같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절대로 정권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략) 이 3원칙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민이 주도할 때 만인 것이다. 국제적 강대 세력에 예속되지 않은 민, 무기 행사권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려는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민, 사상이나 제도에보다 정과 피에 얽혀 있는 민, 이 민 만이 기존적인 모든 담을 헐 수 있는 본질적이며 실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61]

이렇듯 안병무는 반통일적 현상을 지양하고 통일과업에 힘써야 할 신학적 논거를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화해의 제사로서의 희년 선포에 두었으며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서 특권층의 기득권 포

59) 앞의 책, 341-346, 351-353.

60)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을 계기로 미·일·중 삼국 관계가 화해의 분위기로 전환되자 남·북한도 분단 이후 최초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통일의 자주성, 평화, 민족의 단결을 주창했으며 신뢰와 교류를 위해 비방과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사람, 경제, 통신 분야의 교류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홍진, "7·4 정신은 살아있는가," 『中國』제13집 (1989), 4.

61)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340.

www.kci.go.kr

기, 눌린 자들의 생존권 회복, 미군과 핵무기 철수, 한미연합 군사훈련 폐지, 무기 증강 중단,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과업 실천 등을 제시했다.

3. '전'(轉): 통일의 주체자로서의 '민'(민중)의 위치 부상

안병무는 통일론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신의 논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에 의한 수평적 통일론을 한층 고양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가 정부의 주도에 의한 수직적 통일론을 혁파하고 민에 의한 통일론을 논리적으로 고조한 단계는 통일론의 대전환점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기승전결 구도의 '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반통일적 현상 극복 방안에 기초하여 본격적으로 통일의 주체자를 논하는 '전'의 단계에서는 "민족 통일문제의 성서적 조명," "통일 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통일은 민(民)의 손으로" 그리고 함석헌의 씨알론을 민중신학 입장에서 풀어낸 "씨올과 민족통일" 등 네 편의 논문들을 제시했다.

1) 정부와 기독교계에의 이의 제기

안병무는 민중신학자로서 함석헌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었지만 민중해방과 통일의 차원에서 함석헌의 씨알로서의 민중론은 안병무의 오클로스를 중심에 둔 민중신학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다분히 공통분모가 자리잡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62] 그는 함석헌의 '씨올'을 때 묻지 않은 민중의 한국적 표현이라며 크게 공감을 표했다.[63] 그는 민족의 실체는

62) cf. 안수강, "함석헌(咸錫憲)의 신앙전환(信仰轉換)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제102집(2016), 111. 함석헌, 안병무, 서남동, 김용복 등 1세대 민중신학자들의 민중사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논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볼 것. 정지석, "함석헌의 민중사상과 민중신학," 『神學思想』제134집(2006).

63)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405, 458.

www.kci.go.kr

바로 이 씨알이자 민중이며 이들이 곧 민족통일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1976년에 발표한 "민족적 과제와 교회"에서는 민족통일을 결정하는 민족주체는 남한이나 북한의 소수 집권자 집단층이 아니라 오로지 민중이고 이들이 주체자가 되는 사회가 바로 민주사회라고 역설했다.[64] 강원돈은 안병무의 민이 선도하는 이러한 통일론에 대해 민족 공동체의 비전은 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65]

안병무는 "민족 통일문제의 성서적 조명"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과 기성교회 측 양자의 노선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완강하게 통일문제는 정부가 전권을 갖고서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었다. 정부는 통일문제는 국제관계를 측정하고, 국내적으로는 힘의 균형 등 역학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실리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결론을 내려야 하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인 기독교가 이 사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었던 것이다.[66] 사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전반기까지 통일논의는 정부가 독점했다. 안병무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와 독선적인 정책에 대해 반발했다. 또한 동시에 기성교회가 북한선교 차원에만 역점을 두면서 늘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여 부화뇌동(附和雷同)함으로써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67] 즉 민으로서의 고유한 권리와 의무를 방기한 행태로 간주했던 것이다.

64) 안병무, "민족적 과제와 교회," 『基督敎思想』제211호(1976), 50-51.
65)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156.
66) 정원범,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윤리 · 선교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2015), 297.
67) 기성교회 측에서는 정치 경제적 차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통일을 종교단체인 교회가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통일과업과 관련된 교회의 핵심 사업은 북한선교라고 주장했다.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359.

www.kci.go.kr

그는 국가와 기독교가 유착하여 절묘하게 정책상의 공통분모를 취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2) 신학적 담론, 성경에서의 전거(典據)

안병무는 정부와 기독교 양자의 견해 모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독교가 통일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전거의 당위성을 민중신학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라는 현상의 민중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안병무는 민의(民意)에 바탕을 둔 계약체계로서의 출애굽 전통을 조망하고 가나안 정착 시 이스라엘은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부족동맹체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사사시대 당시 유사시에는 일시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위기를 타개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평범한 백성으로 복귀하던 제도는 모두 지휘자와 민중 그리고 하나님과 민중 사이에 장애가 없었던 시대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나 부족동맹을 고수하고자 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냉정한 항변과 설득(사무엘상 8:11-18)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부족동맹체제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인 상하 수직구조의 왕정체제가 등장함으로써 지배자와 피지배자, 노동 및 경제적 착취와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고 본다. 이후 부패한 왕권에 도전한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 등의 예언자군(群)에 대해서는 왕국 수립 이전의 여호와의 민중이자 부족동맹의 전통에 서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묘사했다. 그에 의하면 예언자군의 두 조류는 어용적인 입장을 취했던 왕실 주변의 예루살렘 진영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민족통일을 염원했던 갈릴리 지역의 민중군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후 예

www.kci.go.kr

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것도 그가 철저하게 민중의 노선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고 했다.[68] 이 논지를 바탕으로, 안병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한국의 분단 상황에 견주어 비교하면서 통일의 실마리를 부족동맹의 전통에 서 있다고 자부한 민중정신에서 풀어가고자 했다.

통일 이스라엘왕국은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즉위 시점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양분되면서 분열왕국시대를 맞았다. 안병무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과 통일의 과제를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교훈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첫째, 민족분열은 민을 견지하지 못한 권력 야욕을 가진 집권계층에 의해 초래된다는 점, 둘째, 군사력과 통치체제의 강화는 민족의 통일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자초하고 이를 심화시킨다는 점, 셋째, 민이 아닌 군사통치적 통일은 민족분열을 야기한다는 점, 넷째, 따라서 민에 의한 통일이 지향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도식이다.[69] 특별히 군사적 무력 통일문제에 있어 강원돈은 안병무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숙고해야 할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안병무가 평화는 결코 전쟁과 무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평화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상정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했던 것이라고 이해했다. 안병무에게 정의란 평화를 떠나서 논할 수 없는 대전제였다는 것이다.[70] 또한 안병무가 남긴 사상적 공헌으로서 기독교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적 전거로 제시하였던 거룩한 전쟁

68) 앞의 책, 360-366. 안병무는 '언약신학'이 아닌 '부족동맹'의 관점에 입각하여 다윗왕조를 비판했다. 개혁주의 구약신학자 로벗슨은 구속사역의 언약신학 관점에서 다윗왕조를 조명하여 '왕국의 계약'(the covenant of the Kingdom)을 논했다. cf.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2), 229-230.

69)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367.

70)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153.

www.kci.go.kr

(聖戰)에 대해 전쟁의 신학적 정당화에 제동을 걸었다고 고무적으로 평가했다.[71]

3) '정권'이 아닌 '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 관점은 앞서 본 논문 제3장 통일론의 내연으로서의 민중에서 조명한 '민족공동체론', '민중중심론', '신앙-민족애론' 등이 거시적인 틀에서 이론적 인프라를 형성한다. 안병무는 이에 기초하여 왜 현실적으로 통일운동의 주체가 '정권'이 아닌 '민'이 되어야 하는지 양자를 대조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그가 민중신학 입장에서 제시한 '정권과 민에 의한 통일론 비교'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민'이 민족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

정권(집권층)에 의한 경우	민(民)에 의한 경우
① 외세에 의존하고 간섭을 받게 됨 ② 상대방을 적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한 비평화적 방식 채택 ③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지 못함(①-③: 339-340) ④ 권력 야욕은 민족분열을 초래함(367) 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음(376) ⑥ 노동자 탄압 및 빈부 격차의 심화(389) ⑦ 민족의 의사를 펴는 일이 제한적임(376) ⑧ 역대 집권자들의 분단 고착화: 보안법, 안기부법(388)/통일 의지 부재(403) ⑨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접촉을 금지함(392)	① 국제적 강대 세력에 예속되지 않음 ② 무기 행사권을 가지지 않음 ③ 사상이나 제도보다 정과 피에 얽혀 있음(①-③: 340)/민족애가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초월함(472) ④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 조건임(367) ⑤ 절대 다수의 지지가 가능함(378) ⑥ 민주화운동을 통해 통일쟁취의 선로(先路)를 닦아 옴(381) ⑦ 민족의 실체는 '씨올' 곧 민중임/사람의 본래성, 즉 때 묻지 않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봄(458) ⑧ '씨올'은 국가와 법이 있기 전 존재함(408)

* 괄호 안의 숫자는 『韓國民族運動과統一』의 면수를 가리킨다.

71) 앞의 논문.

www.kci.go.kr

이 표에 정리된 내용은 “통일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통일은 민(民)의 손으로” 그리고 “씨올과 민족 통일” 등 세 편의 소논문에 밝힌 통일론의 주요 논지들과 아울러 앞서 본 논문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발췌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韓國 民族運動과 統一』의 면수를 가리킨다.

그는 실천적 방법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명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을 내다보며 기독교가 노력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공산주의를 대할 때 대화가 있는 대결로서의 계몽운동을 솔선 경주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이를 지혜롭게 역(逆)으로 실천해가는 방안이다.[72] 그의 이 제언은 앞으로 기독교 신학계에서 통일문제를 숙고하여 담론을 창출해야 할 의미심장한 과제로 주어져 있다.

4. ‘결’(結): 민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 ‘평화의 길’ 실천

안병무는 진정한 해방으로서의 민족통일, 반통일적 현상 극복을 위한 노력, 통일의 주체로서의 ‘민’의 논지에 이어 마지막 ‘결’(結)의 단계에서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할 실천 강령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의 길’을 제시했다. 강원돈은 안병무의 평화통일 주장과 관련하여 “냉정하게 본다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통일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커다란 과제”라는 데 방점을 두었다.[73] 물론 안병무가 바라보는 미래적 궁극적 소망으로서의 ‘결’은 민중에 의한 민족통일 과업의 실제적 성취에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동학혁명, 3·1운동, 4·19

72) 안병무,『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369.
73)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165.

www.kci.go.kr

혁명 등 거국적 민족운동을 한결같이 민중이 주도했던 것처럼 평화의 길 실천 또한 민중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보았다.

안병무는 자신이 작성해 둔 여덟 편의 소논문들[74]을 동원하여 프락시스신학으로서의 '평화의 길'을 논했다. 그는 이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통일'과 '평화'의 개념을 일원적 지평에서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자 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평화론을 확고한 기초석이자 교두보로 삼아 그 위에 통일론을 건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병무가 제시한 '평화의 길'에 관한 주요논지들을 분석하여 취합하면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의 방향"에서 지금의 통일교육은 오히려 반(反) 통일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까지의 통일문제는 줄곧 역대 정권의 독점물이 되어왔기에 민족의 주인인 국민들의 통일을 지향하는 논의나 통일운동이 일체 금기시 되어 왔으며, 민중이 제외된 정부의 일방적 지론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만성적인 폐단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족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즉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인식시켜주어야 하고, 강대국들에 의해 형성된 냉전논리에서도 속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외세 의존을 벗어나 우리 민족 스스로 이 문제를 소신껏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민족통일운동이 진정한 민족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직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75] 즉 진정한 독립은 남북분단이 고착화된 8·15

74) "평화와 칼"; "아시아 평화와 일본"; "함석헌의 평화사상"; "통일을 위한 민족 교육의 방향"; "평화의 실현"; "분단 극복과 평화"; "새 국면에 선 민족 통일과 기독교"; "희년 선포와 통일 헌법" 등의 논문.

75) 안병무,『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470-472.

www.kci.go.kr

해방이 아니라 장차 남북한 민족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궁극적 민족통일에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분단의 극복과 평화"에서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앙숙관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통합된 공동체를 일구어냈듯이 남북 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린 일본의 잔학한 침략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고발했다.[76] 안병무는 통일론을 전개함에 있어 평화론을 당연지사의 기초석으로 삼았을 정도로 큰 비중을 두었고 특별히 함석헌의 씨알사상에 입각한 평화주의를 심층 주목해야 할 교훈으로 제시했다.[77]

셋째, 기독교의 주체적 독자성을 담아 발표한 1988년 NCC(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선언문[78]을 소개하고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총체적 개혁) 운동이 야기한 파장이 북한의 문호개방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향한 기회가 그만큼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황에 착안하여 민에 의한 통일쟁취 차원에서 NCC가 통일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다.[79]

---

76) 앞의 책, 424-438.

77) 앞의 책, 439-467. 함석헌은 성경의 평화사상에 간디(M. K. Gandhi)와 퀘이커(Quaker)의 평화주의를 받아들여 접목시켰다. cf. 안수강, "함석헌(咸錫憲)의 신앙전환(信仰轉換) 고찰," 127-130; 정지석, "한국기독교 평화윤리의 연구: 기독교 평화주의(Christian Pacifism)와 함석헌의 평화사상," 『기독교사회윤리』제11집(2006), 220-225.

78) NCC 선언문: 민족분열과 통일문제는 기독교가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함/1980년대 중반 이래 산발적으로 전개된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책임 있는 공기관으로서 운동을 뒷받침함/냉전 체제의 와해를 위하여 독재정권에 의해 금기시 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함/분단과 통일문제는 '체제 간 문제'에서 '민족 문제'로 인식을 전환함/1995년 희년 선포. 안병무, 『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497-498.

79) 앞의 책, 496-504(둘째, 셋째 항의 출처). 안병무는 통일위원회는 정부에 다음 사항을 건의할 것을 주장했다. 휴전협정을 위한 평화협정, 나아가 불가침조약으로 바꿀 것/분

www.kci.go.kr

넷째, “희년 선포와 통일헌법”에서는 기독교신앙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네 가지의 사안들을 주장했다.[80] 첫째, 원칙은 통일이 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둘째, 통일헌법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상이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토지개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과의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들었다. 그는 끝으로 이 원칙들을 합리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가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회합하여 ‘통일헌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 주장은 기독교가 정부 주도의 통일정책에 순응해온 종래의 수동적 태도를 지양하고 주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갖는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민중신학자 안병무가 자신의 민중신학 관점에서 전개한 통일론을 고찰했다.

안병무의 통일론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가 한국이라는 큰 공동체를 가리킬 때 ‘국가’라는 개념이 아닌 ‘민족’의 개념을 깊이 있게 투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해방 후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길을 자초함으로써 이상적인 해방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통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진정한 해방의 길은 하나의 민족을 구현하는 통일과업 성취에 있다고 천명했다. 그는 남북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민족공동체론’,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4·19

단시대 극복을 위한 의지 실천(미군철수, 핵무기 완전철수, 감군단행 등)/두 정부에서 통일에 방해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 폐기/민족공동체 위상 설정 집중. 앞의 책, 511.

80) 앞의 책, 517-525. 안병무, “희년선포와 통일헌법,” 169-172.

www.kci.go.kr

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역할을 통시적으로 조명한 '민중중심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과 민족애가 합류된 '신앙-민족애론'의 도식을 통해 민중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과업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 민중을 내연으로 삼아 실천적 외연으로서의 통일을 논했으며 진정한 해방으로서의 민족통일 각성('起'), 반통일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承'), 통일의 주체로서의 '민'의 위치('轉'), 민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 '평화의 길' 실천('結')을 주장했다.

민중론의 초석 위에 통일론을 전개한 안병무의 논지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기독교의 통일론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을 남겼다.

첫째, 민족통일의 과업을 범민족적 수평적인 과제로 보았다는 점이다. 정부 측이나 기성교회 특히 보수교단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상위 기구인 정부의 전권에 속한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병무는 이러한 고착화된 사고를 전환시키려는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통일과업이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독교 측,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 공통된 과제임을 보여주려 했고, 그 주도세력을 권력층이 아닌 민으로 적시함으로써 종래의 수직적 통일 수행체제를 수평적 수행체제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다. 그의 공헌은 전 국민이 통일과업을 범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모두가 동참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각성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둘째, 신학적 입장과 민족통일론 모색을 한 지평에서 가교(架橋)시킴으로써 신학계에 통일신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입지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신학적 입장과 민족통일론을 합류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남북간 화해를 고취하고자 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통일론을 진전시켰다. 안병무가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학계에서는 성경신학, 조직신

www.kci.go.kr

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의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연구해 온 소폭의 제한된 주제들만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안병무는 신학연구 분야에서 운신의 폭과 지경을 넓혔다. 자신의 민중신학 통일론을 효시로 어떠한 신학분야에서든지 통일론에 접근하여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는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해줌으로써 교파와 교단, 신학노선을 초월하여 통일론을 지필 수 있는 고도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셋째, 통일론을 순수하게 한국적 상황에서 논했다는 점이다. 안병무는 유년기에 간도에서 성장하면서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목격했고 일본 강점기와 6·25동란, 자유당정권, 군사정권의 유신체제를 거쳤다. 그는 민중의 비통한 참상들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인생행로에 깊이 각인한 인물이었다. 그의 학식과 후진양성의 행적을 고려하면 신학자로서 안병무 만큼 '민족' 혹은 '민중'에 대한 소양이 깊은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그의 민족통일론은 단지 외국에서 수학한 학적 배경이나 경험한 사례들에 토대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와도 같았던 삶의 현장에서 수립되었고 체계화되었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민중신학 통일론을 개척한 안병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어섰다. 한국기독교는 그가 신학적 관점에서 제시한 통일론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병무의 통일론이 1970년대로부터 1980년대에 걸쳐 작성된, 적어도 한두 세대 전의 논지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학계에서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라는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차원의 '결'(結)의 단계를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2월 13일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추격병들의 총탄을 맞으며 JSA를 넘어 귀순한 사건은 온 민족이 통한의 심정을 느끼며 다시금 평화통일의 과업을 간절히 염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 화해의 기류가 조성되고

www.kci.go.kr

대화가 오가는 긴박한 시기인 만큼 신학계에서도 평화와 통일에 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자는 안병무가 제시한 범민족적 수평적인 과제 실천, 신앙적 책무로서의 민족통일 모색, 그리고 남북한의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한 통일론을 염두에 두어 한국 기독교계가 신학적 관점에서 숙고해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실에 적합한 평화통일의 진전된 패러다임을 논의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 평화통일 전략 개발과 평화의 실천, 민족갈등 지양, 민족통일정신 고취, 통일교육 활성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담론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神學思想』제151집(2011), 141-171.

구미정. “데기-되기『선천댁』에 나타난 안병무의 ‘민중구원론’ 다시 읽기.”『神學思想』제153집(2011), 221-258.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편).『기독교대백과사전(제10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김기달. “민중신학과 정통신학의 비교연구.”『韓國教會史學會誌』제3집(1990), 87-111.

김명구. “해방 후 이승만, 윤보선, 장면의 사상적・계보적 갈등 연구.”『韓國教會史學會誌』제33집(2012), 247-285.

김명수. “안병무의 탈 부르주아 신학적 성서해석학.”『神學思想』제96집(1997), 125-154.

김희헌. “과정신학의 범재신론 지평에서 본 안병무의 민중메시아론.”『神學思想』제140집(2008), 233-274.

민경배.『歷史와 信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박삼경. “민중신학과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해방의 의미.”『기독교사회윤리』제24집(2012), 125-150.

박정신.『근대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1997.

서광선. “한국의 민중신학.”『1980년대의 한국 민중신학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손규태. “심원 안병무의 교회 이해.”『神學思想』제120집(2003), 157-181.

안병무. “내가 맞은 8・15해방: 쟁취하지 못한 해방의 비극.”『역사비평』제28집(1995), 15-21.

_____. “민족적 과제와 교회.”『基督教思想』제211호(1976), 42-51.

_____.『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_____.『韓國 民族運動과 統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_____. “희년선포와 통일헌법.”『神學思想』제76집(1992), 162-172.

안병무박사고희기념논문집출판위원회.『예수・민중・민족』. 서울: 한국신학연구

www.kci.go.kr

소, 1992.

안수강. “안병무의 민중신학(民衆神學) 고찰.”『역사신학논총』제22집(2011), 55-90.

_____. “李樹廷의「信仰告白書」와「宣敎師派送呼訴文」문헌 분석.『韓國敎會史學會誌』제33집(2012), 149-214.

_____. “함석헌(咸錫憲)의 신앙전환(信仰轉換) 고찰.”『한국기독교신학논총』제102집(2016), 105-141.

원종흥.『西洋哲學과 基督敎哲學』. 서울: 수덕문화사, 1990.

유태화. “한국 장로교회의 기독론 이해의 한 측면: 안병무를 중심으로.”『개혁논총』제22집(2012), 157-196.

이장형. “남북통일 논의의 기독교 내러티브 윤리적 접근.”『기독교사회윤리』제36집(2016), 143-178.

이재정.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안병무의 민중공동체.”『신학연구』제59집(2011), 144-172.

이중근(편).『6・25전쟁 1129일』. 서울: 우정문고, 2014.

전 철. “민중신학의 서구신학 비판에 대한 연구.”『組織神學論叢』제30집(2011), 107-132.

정원범.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기독교사회윤리』제33집(2015), 283-316.

정지석. “한국기독교 평화윤리의 연구: 기독교 평화주의(Christian Pacifism)와 함석헌의 평화사상.”『기독교사회윤리』제11집(2006), 207-236.

_____. “함석헌의 민중사상과 민중신학.”『神學思想』제134집(2006), 101-133.

정홍진. “7・4 정신은 살아있는가.”『中國』제13집(1989), 1-12.

조수현. “안병무의 예수론.”『신학과현장』제7집(1997), 275-302.

조승혁.『한국교회와 민중선교의 인식』. 예산: 정암사, 1986.

채희동. “안병무의 삶과 신학-한국신학의 순례자-.”『민중과신학』제2권 2호(2000), 76-93.

최형묵. “안병무의 인권사상.”『神學思想』제160집(2013), 167-198.

한정헌. “들뢰즈 사상에서 본 안병무의 소수자신학.”『한국기독교신학논총』제96집(2015), 67-91.

함석헌.『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전집 제14권)』. 서울: 한길사, 1985.

현영학. “민중, 고난의 종, 희망.”『神學思想』제51집(1985), 863-874.

www.kci.go.k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新東亞編輯室(편).『原資料로 본 北韓』. 서울: 동아일보사, 1989, 58-66.

堀米庸三/박시종 역.『역사를 보는 눈』. 서울: 개마고원, 2008.

Ahn, Byung-Mu. "Jesus and Minjung in the Gospel of Mark." *Minjung Theolog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3.

Gerhard Kittel(ed.). *T. D. N. T.(Vol. V)*. Translated by G. W. Bromil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77.

Palmer Robertson, O. *The Christ of the Covenants*.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2.

Suh, Kwang-Sun. "Korean Theological Development in the 1970s." *Minjung Theolog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3, 38-43.

A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논문투고일: 2018년 3월 05일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06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안병무의 민중론에 기초된 그의 통일론을 분석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민중신학은 1970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민중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전개한 고투의 체험에서 발흥했다. 안병무는 강력한 군부독재와 독재체제에 의해 멸시받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민중'(民衆, ὄχλος)이라고 칭했다. 그는 민중신학에 기초하여 민중이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천명했으며, 통일 한국을 민족정체성을 구현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안병무의 저서『韓國 民族運動과 統一』을 중심으로 그의 통일론을 살펴볼 것이며, 민족통일에 대한 각성(起), 반통일 현상의 극복(承), 민중에 의한 통일(轉), 민중론에 바탕을 둔 평화의 길 실천(結) 등 그의 주요사상들을 분석할 것이다. 안병무가 통일론에서 보여준 의미심장한 논점들에 대해서는 ①통일론의 신학적 성찰 ②평화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 ③평화통일 전략과 평화의 실천 ④민족갈등 지양(止揚) ⑤민족 통일정신 고취 ⑥통일교육 활성화 등으로 정리했다.

향후 이 연구가 안병무의 '민족론', '애국의 관점', '정치론', '신앙적 사고' 등과 같은 연구 작업으로 더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안병무, 통일론, 민중론, 민중신학, 민족운동, 남북분단

www.kci.go.kr